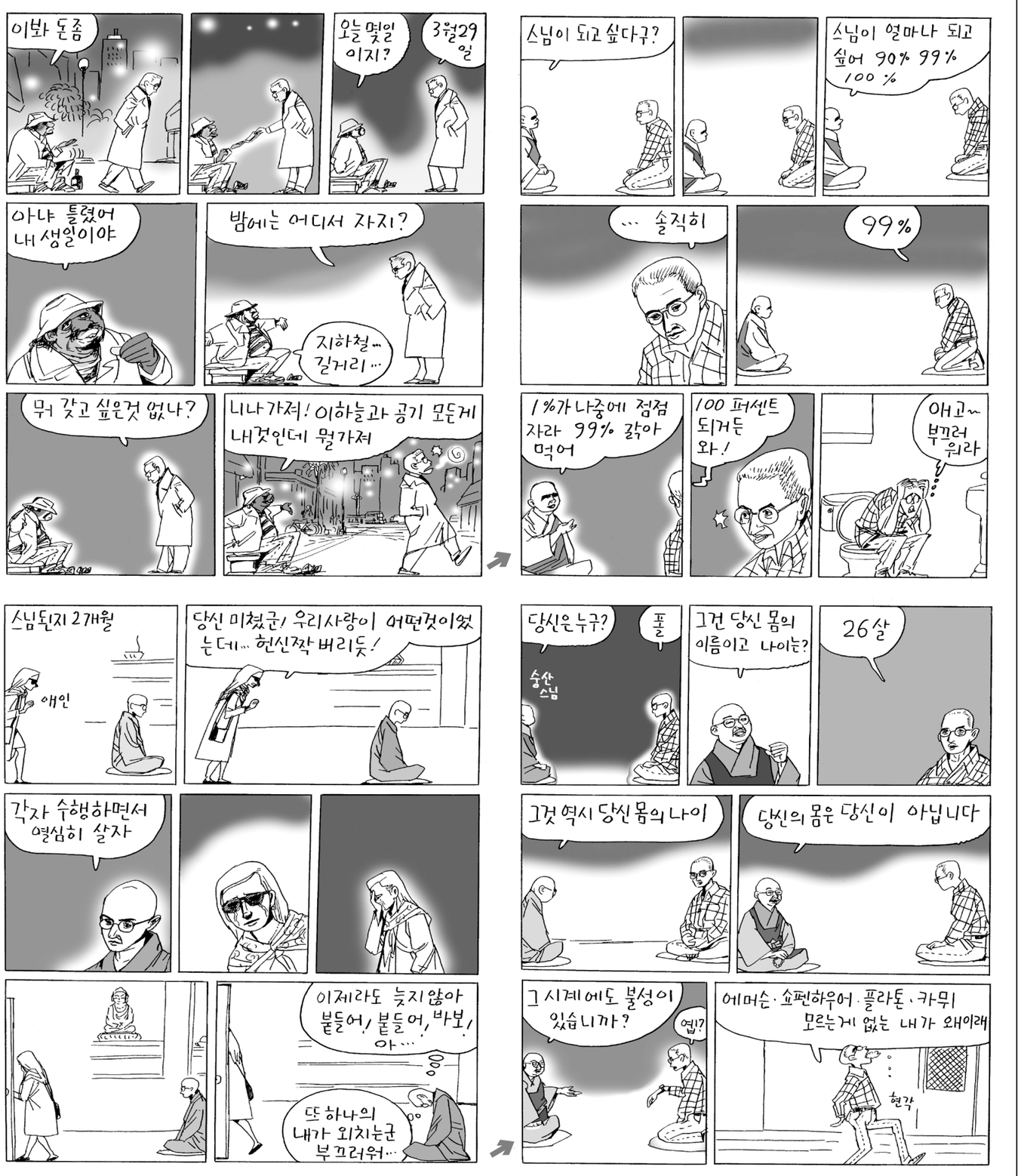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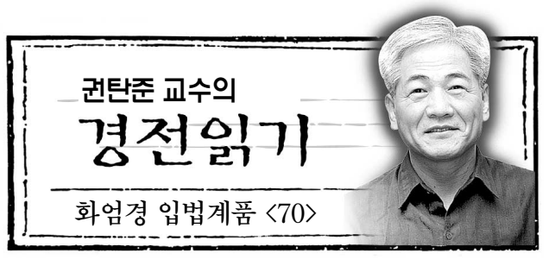
주장자따라…

㉑ 현각 스님의 발심

조태호



현각스님 : 1964년 미국 뉴저지의 천주교 집안에서 출생. 하버드 대학원에서 종교철학 공부할때 숭산스님의 법문을 듣고 1992년 한국에 와서 출가.



문수보살의 법문

문수·보현 보살이 구도여행의 처음과 끝

확고한 믿음이 보현행 성취의 큰 토대

미륵보살이 선재동자에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현의 수행문에 들어가서 성취하는 법을 물으라며 찾아가기를 권하는 선지식은 문수보살이다. 그가 문수보살을 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문수사리가 가진 서원을 다른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보살은 가지지 못했다. 선남자여, 문수사리동자는 그 수행이 광대하고 그 서원이 그지없어서 모든 보살의 공덕 내기를 쉬지 아니한다.

선남자여, 문수사리는 항상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며,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보살의 스승이 되며,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성취하여 시방세계에 소문이 났으며, 모든 부처님 대중 가운데서 법을 연설하는 법사가 되어 모든 여래가 찬탄하는 바이며, 깊은 지혜에 머물러 있어 모든 법을 사실대로 보고, 모든 해탈의 경계를 통달하고, 보현이 행하는 행을 끝까지 마치었다. … 그러므로 선남자여, 그대는 마땅히 문수사리에게 가야 하나니 고달픈 생각을 내지 말라. 문수사리는 그대에게 모든 공덕을 말하리니, 왜냐하면 그대가 먼저 선지식을 만나고 보살의 행을 듣고 해탈문에 들어가고 큰 원을 만족한 것은 모두 문수사리의 위덕과 신통의 힘인 것이다. 문수사리는 모든 곳에서 구경(究竟)까지 얻게 해준다."

선재동자가 처음에 선지식을 찾아 구도의 길을 나선 것은 문수보살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 그 동안 많은 선지식을 만나 뵙고 법문을 들어 상당한 경지에 도달하여 이제 최후의 선지식인 보현보살만을 남겨 놓고 있는 마당에서 지나온 일백 일십 성을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최초의 선지식인 문수보살을 만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재동자가 지금까지 만나 온 선지식들은 제각기 한 가지 씩의 해탈 법문을 해주었지만, 문수보살은 선재동자의 수행을 칭찬할 뿐 어떠한 특별한 법문을 설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입장은 최초에 문수보살이 선재동자에게 보현행을 갖출 수 있는 도(道)를 구하기 위해 선지식을 찾아가라고만 할 뿐 특별한 법문을 설하지 않고 있는 데도 나타난다. 그리고 최후의 선지식인 보현보살 또한 광대한 자비행인 보현행에 대해서 말할 뿐 특별한 법문을 설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구법여행의 시작을 열고 또한 마무리하는 보살이다.

선재동자는 문수보살의 가르침에 의해 보현의 훌륭한 행을 갖춤으로써 구법여행을 마무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문수보살의 가르침은 선재동자의 모든 구법과정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앞의 경문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문수사리보살은 항상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고,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보살의 스승이 되어서 모든 곳에서 보살행을 구경(究竟)까지 얻게 해주기 때문에 이제 다시 선재동자를 문수보살에게로 가라고 하는 것이다.

선재동자는 미륵보살이 가르쳐준 대로 보문국(普門國)의 소마나 성(城)에 이르러 문수보살을 생각하며 두루 널리 찾아보려고 하였다. 이 때 문수보살은 멀리서 오른손을 펴서 일백 일십 유순이나 뻗쳐 선재동자의 정수리를 만지면서 말하였다.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여, 만일 믿음의 뿌리(信根)를 여의었던들 마음이 용렬하고 후회하여 공 닦는 행을 갖추지 못하고 정근에서 물러나게 되며 한 선근에도 집착하고 조그만 공덕에도 만족한다 하여 교묘하게 행과 원을 일으키지 못하며, 선지식의 거두어 주고 보호함도 받지 못하며, 여래의 생각하심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의 성품, 이러한 이치, 이러한 법문, 이러한 수행, 이러한 경계를 알지 못하고 두루 알음과 갖가지 알음과 근원까지 지극함과 분명하게 이해함과 들어감과 해탈함과 분별함과 중득함과 얻는 것을 모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때 문수사리는 이 법을 말하여 가르쳐서 통달하고 기쁘게 하며, 선재동자로 하여금 아승지 법문을 성취하고 한량없는 큰 지혜의 광명을 구족하여 보살의 그지없는 다라니, 원 삼매, 신통 지혜를 얻게 하고 보현의 도량에 들어가게 하였다가 선재를 도로 자기의 머무른 곳에 두고는 문수사리가 작용을 거두고 나타나지 않았다.

문수보살은 선재동자가 보현행을 성취하게 된 것은 결국 최초에 선지식의 가르침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설하고 있다. 이 믿음이 있음으로 해서 구도의 발심이 있을 수 있었고, 그 발심이 온갖 수행을 성취케 하였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문수보살은 처음에 한 생각을 일으키는 신심(信心)에 절대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문수보살의 법문은 선재동자가 이루는 공덕은 모두 문수보살의 힘이라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믿음(信根)이 없으면 깨달음의 경계에 증입(證入)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네티즌 교리문답

'기관목인(機關木人)'의 뜻은?

문 〈증도가〉 등 선어록에 나오는 '기관목인(機關木人)'이 무슨 뜻인가요? (ID '떡본김에')

답1 : 〈증도가〉에 '기관목인을 불러서 물어 보라(喚取機關木人問), 부처를 구하여 공 베풀면 조만간 이룬다 하리라(求佛施功早晩成)'는 문장이 보인다. 여기서 기관(機關)은 활동 시킬 수 있도록 장치를 갖춘 기계이니 '기관목인'은 오온으로 화합하여 된 몸을 비유한 말이다. 공에 집착한 사람은 마치 인형이나 허수아비 같아서 도를 닦게 한들 어느 때에 피안에 이르겠는가 하는 뜻이다. (ID '촌동네')

답2 : '기관목인'이란 나무 인형 속에 들어가서 인형극 하듯이 목인을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증도가〉에서 '기관목인에게 물어보라'는 것은 곧 '나무 장승(木人)에게 물어보라. 나무 장승은 언제든지 대답하고 있고, 돌로 만든 여자(石女)는 언제든지 춤을 추고 있다'는 말이다. 곧 '참으로 나무 장승이 노래 부르고 돌 여자가 춤을 출 때 그 때가 불법을 완전히 성취한 때이다' 하는 말이다. 중생의 사량분별이 다 떨어져 버리면 무정물인 나무 장승과 돌 여자처럼 영영 대무심(大無心)이 되어 비로소 진여의 무진묘용이 거기서 살아나게 된다. (ID '촌눔')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㊺

교외별전(敎外別傳)- 5

진상·가상 따로 있나?

만물에 대한 주관적 인식·판단일뿐

'마음이 만법의 근본'이란 곧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지어낸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법(法) 즉 다르마(dharma)라는 말의 뜻을 소개했고 육근(六根), 육경(六境), 육식(六識)의 개념도 소개하였다.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지어낸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대뜸 이런 의문이 일어난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만지는 물체들이 모두 실상은 없는데 마치 정말 있는 듯이 내가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냐? 그리고 또 이런 의문도 든다. 모든 것을 지어내는 것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심전심(以心傳心) 즉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써 어떤 마음을 전한다는 말인가? 뒤의 의문은 다음에 생각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선 앞의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기로 한다.

모든 것을 마음이 지어내었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인가? 내 앞의 풍경, 내 앞의 물건들은 아무리 곰곰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아도 도저히 허깨비라고 치부해버릴 수가 없는데,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내가 지어낸 가짜라는 말인가? 내가 앞에 펼쳐놓고 있는 이 신문이, 읽고 있는 이 글이, 이 책상이, 이 방이, 이 집이, 이 세상이 다 허깨비란 말인가?

불교 문헌에는 마치 그렇다고 하는 듯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꿈의 비유가 그 한 예이다. 모든 것이 가환(假幻) 즉 허깨비라고 한다. 꿈속에서 겪는 것은 다 실제가 아닌데도 꿈속에 빠져있는 동안에는 그 모두가 생생한 현실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물에 빠진 꿈을 꾸면서 금방 죽을 듯이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슬픈 일을 당하는 꿈을 꾸면서 펑펑 울기도 한다. 불교 문헌에는 중생이 무시이래(無始以來), 즉 시작도 없는 때부터 길고 긴 꿈에 빠져있다는 말도 많이 나온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철썩 같이 믿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허깨비요, 현실의 세계, 꿈밖의 세계는 따로 있다는 얘기인 듯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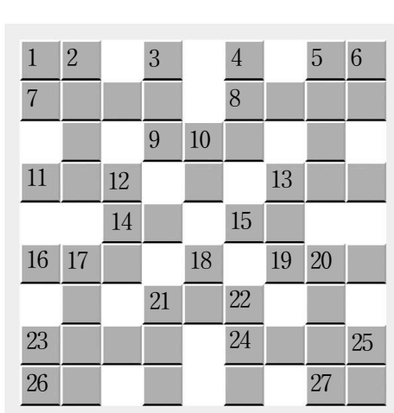
올챙이와 개구리의 비유에서도 같은 느낌을 받는다. 개구리가 아무리 물 밖의 세계 즉 열반의 경지를 이야기해주어도 올챙이는 알아들을 수 없고 기껏해야 자기의 물속 세계 즉 중생 세계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해(오해)할 뿐이라는 얘기인데, 물속의 세계와는 별도로 뭍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하는 듯한 비유다.

얼마 전에 큰 흥행을 거둔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도 그와 비슷한 구도를 설정하고 있다. 그 영화의 감독들이 〈금강경〉을 비롯해서 불교의 세계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현실이라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매트릭스라고 일컫는 거대하고 치밀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연출되는 세계라고 설정하고 있다. 그 가상현실 밖에 별도로 진짜 현실이 따로 있고 실제 인물들이 가상현실의 힘과 싸우는 줄거리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불교에서 허깨비 세상과 실제 세상이 따로 있다고 하지는 않는다. 꿈의 비유든 올챙이의 비유든 일단은 세상 온갖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판단이 사실 그 자체의 진상 그대로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아니라 아집과 탐욕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인식과 판단이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상식퍼즐



정답은 12면에

가로 1. 관아에서 내리던 처분 5. 성품이 깨끗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 가난함 7. 범어 'acintya'의 번역으로, 마음속으로 헤아려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란 뜻 8. 조금도 사사로움이 없이 바른 태도 9. 팔정도의 하나로, 바르게 생각함을 의미하는 말 11. 근본분열 당시 대중부와 대립하던 부파 13. 세친(世親)의 〈십지경론(十地經論)〉을 소의론전으로 하는 종파 14. 붉은 빛의 보석 15. 안거의 다른 말 16. '어머'를 강조하여 내는 소리 19. 쇠로 만든 짐배 21. 나관중의 장편역사소설 23. 사람의 근기에 맞추어 하는 설법 24. 오래도록 살고 죽지 않음 26.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물건을 줌 27. 인두와 위의 사이에 있는 긴 관

세로 1. 부처님오신날 불상에 향물을 붓는 불사 2. 두 다리를 서로 꼬고 앉는 것 3. 우의정과 영의정 사이의 벼슬 4. 인공적으로 처리한 우유 5. 붓다고사(佛音)가 지은 아비담마 논서의 하나로, 팔리 상좌부의 견해를 집대성한 것 6. ○○잡으려 초가삼간 태운다 10. 경전의 내용을 옮겨 적음 12. 부처님 십대 제자 중 '설법제일'의 스님. 13. 땅속에 터널을 파고 부설한 철도 17. 신문·잡지 따위에서, 첫머리에 싣는 중요한 기사 18. 새로 나라를 세움 20.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 21.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사물의 본질적인 세 가지 특성 22. 지장보살을 모신 전각 23. 큰 새우 25. 정도(正道)의 반대말